

社會의 病的 現象 (十三)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疑問인 日本 二字 (續)

何事든지 始作될 때는 그 新奇함을 因하여 疲倦을 忘却하나 暫時 後에는 疲倦 乃至 苦痛을 感하는터인즉 日本의 現代開化도 또한 如斯히 되리라 하고 明白히 說明한 後氏는 말하되, 如斯한 開化를 受하는 國民은 何方面에든지 空虛한 感を 有할 것입니다. 不滿과 不安의 宿感を 抱할 터입니다. 그런데 그 開化가 內發的인 것처럼 意氣가 堂々한 것은 不當하다 하겠습니다. 外貌는 조흐나 虛僞라 할 수맞게 업습니다. 輕薄하다고 할 수맞게 업습니다. 煙草의 眞味를 아지 못하는 小兒가 吸煙하고, 外面에 滿足한 態度를 表한다 하면, 此는 天真의 傲慢이 아니겠습니가? 如斯한 狀態로 지내지 아니치 못할 日本人은 참 悲慘한 國民이라 할 수 맞게 업습니다. 西洋人을 交際하려면 日本式으로는 되지 못하겠습니 즉 交際를 아니함이 上策이나 交際치 안이치 못하게 된 것이 日本의 現狀입니다. 그리고 抑制하여 交際하려면 自己의 習慣을 棄하고, 他의 習慣을 從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일 日本의 現狀이 참으로 如斯할진대 『日本의 將來는 어대까지든지 悲觀이라 할 수맞게 업습니다.』 하얏습니다(氏의 『日本 現代의 開化』).

發展은 一定한 階段과 經路로 成就됨

그러나 우리가 밋고 歐洲文化를 熱誠으로 倣倣함은 一希望이 잇는 까닭입니다. 卽 우리 東亞民族의 固有한 性質과 現時의 社會生活이 相應 順化하여 發展되기를 希望하고 自信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發展함에는 一定한 階段과 經路가 잇습니다. 自然界 發展에도 原始的 動物로부터 人類까지 漸次 一定한 階段을 經하여 進行된 것은 進化論上 一大事實입니다. 原始動物이 漸次 發展하여 腔腸動物이 된 然後에 有脊動物이 되고, 有脊動物이 發展하여 無數한 階段을 經할 새에 周圍 形便에 順應하고 淘汰되며 機關에 機關을 加하여,

人類까지 됨이 事實입니다. 原始動物이 한번 썩여 有脊動物이 되고, 有脊動物이 한번 썩여 猩々乃至 人類가 되는 無法則, 無段階의 發展은 自然法則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如斯히 一次 發展된 後에라도 모든 萬物은 所謂 生物發展의 基本的 法則에 依하여 그 胎兒時期에 總 發展 階級을 一次 經過하여야 生産되는 것입니다. 假令 人類는 그 胎兒時期에 魚類時代로부터 人類時代까지 數萬의 動物이 되얏든 發展 經路의 要點을 一次 經過한 後에라야 生産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人類生活이 自然界의 一現象일진대, 우리 社會生活도 此法則을 從치 안이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現代 歐洲文化가 一定한 發展經路를 經하얏스즉, 此를 採用하는 우리 東西民族도 歐洲民族이 二千年間에 經驗한 그 모든 歷史的 事件 적어도 그와 相似한 것은 一次 經驗하여야 우리가 그 文化 中에서 生活하고 또 發展할 可望이 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東西民族의 過去를 觀察하면 十字軍戰爭 갖은 것도 無하고 文藝復興도 無하고, 宗教改革도 無하고 法國 革命과 如한 自由解放의 運動도 無하얏습니다. 우리 時代를 佛國革命과 如한 內發的 自由 解放에 比較치 못할 理由는 以上에 임의 說明한 바이어니와, 設或 如此한 要領의 反覆이 無하고 우리 社會文化의 發展이 可能하다 假定할지라도 그는 非自然的이라 健康치 못할 것입니다.

現代 東亞 社會生活의 病的 狀態를 如斯히 觀來하면, 어대까지던지 悲觀的 입니다. 勿論 樂觀的 觀察點도 업지 아니할 터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 重大한 問題를 一朝에 解決치 못할진대, 如斯한 問題를 時々로 우리 意識 內에 招致하여, 一便으로는 研究하고 他便으로는 熱誠으로 討論함이 必要할가 합니다. 그러나 모든 問題의 有效한 解決은 單純한 理想的 討論보다도, 實際的 行動으로 解決함이 完全한 듯 합니다. 英人 『카아라일』은 말하기를 모든 疑問은 行動이 업새버린다 하얏습니다. 可及的 만히 活動하여 可及的 多方面으로 經驗하고 그 經驗에 依하여 우리 將來의 大問題를 解決함이 우리 生活의 最高한 目的일듯 生覺합니다.

人格分立의 現象

우리는 只今까지 現代社會의 病的 現象中 所感된 것만 觀察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思想(思潮)生活의 不一致함과 그 感情(藝術)生活의 無調和함과 또 그 行動(政治)함에 衝突이 生함을 觀하면, 心理病學上 所謂 『人格分立』이라는 精神病과 相似합니다(社會가 精神體인즉 그 病도 精神的이라 함은 以上에 임의 指示하얏습니다.). 此病은 純全히 精神的이며 解剖學者가 고 肉體的 變常을 觀察치 못한다 합니다. 그 主要된 症候는 聯想이 不一致함이니, 思想과

思想이 不一致하고 思想과 感情이 不調和하여, 一人格 內에 心理的 衝突을 生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대 如斯한 心理的 衝突은 患者가 아닌 우리도 種々 經驗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醫學家도 此病을 健康者의 一時的 氣分の 變常과 區別하기 困難하다 합니다. 우리 矚각 갖해서는 만일 『人格分立』의 觀念을 廣博히 解釋하면, 文明人은 모다 心理病에 걸린 動物이라 하겠습니까.